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음 5월 7일)

제18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문 대통령 “새만금, 청와대가 챙길 것”

‘환황해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회의원, 해군참모총장, 어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라는 주제로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수산인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96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제8회 행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사업과 관련한 첫 지방 방문지가 새만금이라는 큰 의미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64.8%라는 전국 최고의 지지를 보낸 전북도민에 대한 대통령의 화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물론 위그선 등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풀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에 오니 이 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 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해 본다”며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속도다. 청와대에 신설된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면서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내에 확충,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환경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라며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 신규 선박발주,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장에는 위그선,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등 실물을 전시, 수중 로봇, 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군산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송하진 도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도, ‘환황해 경제권’ 중심지 본격 도약 시동

송하진 지사, 잼버리·군산조선소 문제 등 건의

론, VR,3D 등 오감으로 느끼는 우리바다, 극한 바다 등 해양수산 4차산업 관련 전시와 각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정책1번가’ 등 특별전시 부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25분동안 헬기를 이용, 새만금 전역을 시찰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신항만과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SOC), 동화농민혁명사업, 잼버리대회 지원, 시급현안인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시찰을 마친 뒤 김영석 해수부장관, 송하진 도지사, 해운업수산업 등 업종 대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바다 의인(義人)’, 지역민 등과 군산 시내의 영세어민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소탈한 오찬을 가졌다.

송하진 지사는 오찬 자리에서 청와

대와 각 정부부처에 전북 인사들이 두루 포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균형적이고 전북이 소외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 해양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제도와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해양수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전북의 해양수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해양수산업분야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바다가 품고 있는 미래와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전북의 해양수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다의 날 행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바다 주간’ 동안 전시와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해양관련 연계행사가 이어지게 된다. /김진성 기자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299명의 의원 중 188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62.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뒤 집단퇴장했다.

임명동의안 표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자 전원 퇴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경 이낙연 총리 취임식이 열렸다. /뉴시스

社告

제7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7년 6월 10일 (토) 오후 4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전주매일신문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7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를 오는 1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전주시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전주한지 세계화 ‘힘찬 비상’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된 ‘막시밀리안 2세 책상’ 중앙 서랍 자물쇠 주위 거북이 등껍질 복원에 사용돼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가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면서, 한지 세계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세계 미술품 복원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 한지를 문화재 복원으로 선택하면서, 전주한지가 지난 수십년간 문화재 복원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일본의 화지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루브르박물관은 지난 1951년부터 소장중인 문화재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Bureau de Maximilien de Baviere) 2세 책상’을 복원하는 데 전주한지를 사용했다.

전주한지가 이처럼 세계적인 문화재 복원에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루브르박물관의 한지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시가 세계 문화재 보존·복원시장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의 제작·생산과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루브르박물관의 복원팀을 이끄는 아리안 드 라

샤펠(Ariane de la Chapelle)의 전주 방문을 이끌어냈다.

문화재 복원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아리안 드 라 샤펠은 당시 전주 방문에서 전주한지의 루브르박물관 미술품 복원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전주한지 샘플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복원용 전주한지 샘플을 루브르박물관에 보냈으며, 그 결과 꼬박 1년 만에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2세 책상’ 복원에 전주한지가 사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한지가 사용된 부분은 가구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중앙 서랍의 자물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북이 등껍질의 내피가 되는 부분이다.

이번 복원에는 프랑스 박물관 복원센터가 함께 참여했으며, 프레드릭 레블랑(Frederique LeBlanc) 문화부 복원사의 손으로 복원됐다.

시는 이번 문화재 복원을 통해 전주한지의 문화재 복원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루브르박물관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 화지를 전주한지가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재용 기자

바쁘고 지친 일상은 잠시 뒤로하고
별빛이 수놓인 밤하늘을 스크린 삼아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6.2. - 6.6.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mjff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17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Festival Friend 류현경